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및 집단별 특성요인 탐색: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강현구¹⁾ · 송지나²⁾ · 정수지³⁾ · 이순형⁴⁾

요약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자아실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아가는 근본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발달과업으로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청년 시기 본격적 사회진출의 기반이 마련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지나친 사교육의 영향 등으로 인해 충분한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를 집단별로 구별해 청소년기 개인 및 환경요인에서의 특성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시간과 맥락을 고려한 자아정체감 관련요인 검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중3 코호트의 1차, 4차, 7차, 10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은 총 다섯 개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으로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최저유지형)', '꾸준히 상승하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집단(지속상승형-하)', '꾸준히 상승하면서 평균보다는 높은 집단(지속상승형-중)',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히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집단(지속상승형-상)',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 계속 하락하는 집단(지속하락형)'이었고, 각 집단별로 청소년기 개인특성, 가치관, 정서적 지지, 적성 및 진로 탐색, 사교육 범주에서의 요인들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한 시점의 자아정체감뿐 아니라 장기간 걸친 변화 경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아정체감과 관련해 생애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개인 및 환경 요인과 연계한 맥락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의 실질적인 미래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Erikson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며, 위기를 거치기 전에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신민섭, 오경석, 1993).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서울대 유아교육최고위과정 선임연구원. (kang.hyoungu@gmail.com)
-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석박사통합과정.
-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아탐색을 통한 자아정체감의 위기는 주로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에 충분한 자아탐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기 이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혼돈을 겪거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Shaffer & Kipp, 2010).

최근 보도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이 청년층의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취업 후 극도의 허무함을 느끼거나 직무와 적성의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4. 10. 16). 일명 ‘취업 증후군’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직업 이외의 다른 일에 몰두해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또다시 직장을 찾기 위한 이직을 결심하는데 2014년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네 명중 한 명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격적인 사회진출에 앞서 자신에 대한 성찰, 적성 및 진로탐색 등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성인기에 비로소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인기에는 직업세계 진입 및 가정구성을 위한 준비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탐색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성인기 시기에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중대한 심리적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충분한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지나친 사교육 수준, 그리고 보다 조기에 안정적인 직업세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자아탐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이미리, 조성연, 김은배, 김민, 2014). 많은 청소년들이 외견상으로는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대학 진학 이후에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아정체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당부분 횡단적 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청소년 집단 전체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청소년 개개인의 차이 뿐 아니라 집단적 차이,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충분히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특정시점에서 외형상 나타나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집단별 구분이 필요하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자아탐색을 거쳐 ‘정체감 성취’를 이룬 집단과, 부모 등의 기대를 수용한 ‘정체감 유실’ 상태의 집단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자아정체감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결부되면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까지 고려한 맥락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와 ‘다양성’을 함께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를 포함하는 종단자료를 활용해 전체 연구대상 집

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화양상을 포착해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그러한 집단별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관련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동안 자아정체감 형성과 변화의 다양한 패턴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인기의 안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기 관련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실증적 검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초기에 이르는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라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집단별로 자아정체감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별로는 청소년기의 여러 개인적·환경적 요인들과 관련해 어떠한 집단적 특성과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발달과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개인의 심리적 기능, 대인관계 행동과 역할, 가치, 신념에 대한 선택 및 전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며, 동일성과 일관성을 핵심적 요소로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자아정체감이란 ‘다양한 맥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체감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및 그들과의 관계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Lerner & Steinberg, 2009). 자아정체감은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전생애에 걸쳐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특성을 지닌다.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확고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전생애에 걸쳐 각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정옥분, 2008).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뿌리 내린 자아정체성을 성인기로 통합해가는 과업이 주어지고 자아정체감 형성은 심리사회적 과업으로 대다수의 사람에게 규범적 사건이 된다(Erikson, 1963).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유예기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기대를 경험하고 다양한 역할을 실험해보고 탐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Marcia(1964)는 Erikson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위기(crisis)와 수행(commitment)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성취(achievement), 자아정체감 유예

(moratorium), 자아정체감 유실(foreclosure), 자아정체감 혼미(diffusion) 네 가지 지위로 상정하였다. 자아정체감 유예나 유실로부터 자아정체감 성취로 이동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자아정체감 발달 경로이지만, 대학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0%에서 40%의 학생만이 자아정체감 성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Waterman, Greary, & Waterman, 1974; Waterman & Waterman, 1971), 청소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절반 정도가 혼미와 유예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Kroger, 200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및 학업부담이 과중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위기에 대응하고 탐색을 수행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유예, 유실, 혼미와 같은 상태가 성인기로 이행한 후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rikson과 Marica의 이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아정체감 형성은 전생애 발달과정이며 한 시점에서 정적인 상태뿐 아니라 생애과정 내에서의 변화과정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개인내면과 사회 환경으로부터 높은 압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이 시기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은 이후 성공적인 성인기로 안착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한 이후 형성된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해서도, 자아정체감 형성 및 변화와 관련해 과거 청소년기와 연관된 요인들을 연계시켜 추적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개인요인’, ‘가정 및 사회 환경변인’, ‘진로발달의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양지웅, 2014; 신은경, 2004; 배제현, 1993),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에서는 가정관련 변인들(배경희, 심은하, 2007; 허정철, 2008; 김정남, 권윤희, 2002)과 학교생활 변인(곽미정, 김영미, 2013; 신경원, 2010)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주변 사회적 환경요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청소년기는 장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지도 및 탐색 관련 변인들도 중요하게 연구되었다(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홍향연, 유태명, 2008; 정복연, 2004). 이렇듯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에서 고려된 주요요인들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청소년기 요인들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치관, 가정 및 사회환경 요인, 진로발달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자아정체감과 개인요인 - 인구사회학적 특징, 가치관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인격(personality) 발달의 한 부분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가치관, 심리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개인 사회 내에서 사회화 받는 과정을 차별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형성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

(gender)은 성정체성발달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과도 긴밀한 관련은 갖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자기에 대한 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hillips & Pitman, 2003; 서진숙, 이동혁, 2010 재인용).

가치관은 세계에 대한 신념, 태도, 판단으로서 개개인의 고유한 관점을 형성하고 이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소가 된다. 가치관은 개개인에게 고유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행동의 바탕이 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Parsons & Shils, 1962), 개인이 일관된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확고하게 한다.

3. 자아정체감과 가정 및 사회환경 요인 - 정서적지지, 사회화 대리인(socialization agent)

자아정체감 형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사회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개인은 가족, 학교 등과 같은 사회화 대리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인 자아정체감 탐색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 중에서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율성의 근원으로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탐색의 원천이 된다. 부모의 격려와 애정은 자녀에게 심리적 자율성을 부과하고 이는 자아정체감 탐색과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리인이며 자아정체감 형성을 포함한 인격 발달에 극적인 영향을 준다(Lerner, Steinberg, 2009).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교육환경의 맥락을 고려할 때 동아리 활동이나 사교육도 의미 있는 사회화 대리인으로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황매향, 2008; 김지연, 2004).

4. 자아정체감과 진로발달

Super(1990)는 사회학습의 산물인 자기개념이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의 순환 및 재순환을 겪으면서 전생애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자기개념이 성격, 흥미, 가치, 적성, 욕구와 같은 개인심리적 측면과 노동시장, 사회,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진로 자아개념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자아개념은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아개념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은 다시 자기이해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겪는다(김봉환 외, 2010).

자아정체감은 개인에게 적합한 생애역할의 결합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생애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삶의 가치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이후 인생에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다양한 개인요인과 가정 및 사회환경의 요인과 복합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던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 관련 중요요인들을 교육고용패널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관련이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자아정체감 형성 관련 중요요인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과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0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현재 10회 조사가 완료되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10년 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중기 청소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다양한 변화 시점을 포함하고 있어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과 환경 변인을 정교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연도 간 문항 일치도가 높아 자아정체감 관련 변인들의 종단적 변화 양상 또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본 선정에 있어서도 전국을 단위로 한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한 대규모 표본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중학교3학년 코호트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즉 2004년(1차년도)에 중학교 3학년으로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중학교3학년 패널을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패널에 비해 청소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더불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사이의 이행과 변화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진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 하에 일찍 진로결정을 완료하는 만큼, 이 집단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자아정체감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 진학자들에게서는 표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자아탐색을 대학진학 이후로 미뤘을 가능성이 다른 집

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업세계와의 연관성이 높고 사회진출이 보다 빠른 전문대 진학생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생들은 대학진학 이후 진지한 자아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유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만큼, 이 집단은 가장 많은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살펴보기에도 적합하다. 2008년(5차년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며 2008년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응답한 학생 747명이 연구 대상이며, 이 중 남학생은 367명, 여학생은 380명이다.

2. 변수선정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설문지 중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6문항(<표 1>)을 사용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변화에 따른 잠재 집단 도출을 위해 2004년(1차년도), 2007년(4차년도), 2010년(7차년도), 2013년(10차년도)⁵⁾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3 자료와 고3 자료를 이용한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자료이면서 새로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및 여러 관련요인을 공통적으로 측정, 분석하기 위해 해당 요인들에 관한 설문을 각 차년도별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네 개 연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자아정체감 측정 문항

(5점 Likert)

- 1)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 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정체감 잠재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인 2004년(1차년도)과 고등학교 3학년인 2007년(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⁶⁾ 집단별 특성차이를 검토하기 위한 예상요인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선정했는데,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자아정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것들이었다. 필요한 경우 총합, 평균 등을 계산하였고, 월 소득과 사교육비는 왜도와 첨도가 높게 나타나 자연로그화 처리를 하였다. 검토대상이 된 예상요인은 <표 2>와 같다.

5) 각각 중3, 고3, 대3, 25세에 해당한다.

6) 검토요인 중 중학교 3학년때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측정되지 않아 이를 고등학교 1학년인 2005년(2차년도) 자료로 대체하였다.

〈표 2〉 자아정체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특성 파악을 위한 검토요인

분류	변수명	측정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특성	성별	
	보호자 유형	중3 가구설문지
	보호자 동거여부	중3 가구설문지
	남성보호자학력	중3 가구설문지
	여성보호자학력	중3 가구설문지
	형제서열	중3 가구설문지
	소득	중3, 고3 가구설문지
	교급 ⁷⁾	
	남고여고	고3 학생설문지
	<학교생활 특성>	
가치관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중3, 고3 학생설문지
	성적등급	중3, 고3 답임설문지
	수업태도	고3 학생설문지
	교과흥미	고3 학생설문지
	학업스트레스	고3 학생설문지
	비행경험(가출, 흡연, 음주, 징계)	중3, 고3 학생설문지
	왕따경험	고3 학생설문지
	인생의 중요한 것	중3, 고3 학생설문지
	대학진학이유	중3, 고4 학생설문지
	학과선택고려요인	고3 학생설문지
정서적 지지	직업 갖는 이유	고3 학생설문지
	직업선택요소	중3, 고3 학생설문지
	내재적, 외재적 학습동기	고3 학생설문지
	가정생활 만족도	중3, 고3 학생설문지
	격려자 유무, 대상	중3, 고3 학생설문지
	고민(공부-학교-성적문제, 진학-진로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님과과의 불화, 이성친구 문제, 친구와의 관계, 성격문제, 외모-신체문제)	중3, 고3 학생설문지
	자살 고민 경험	중3, 고3 학생설문지
	가족과 활동	중3, 고3 학생설문지
	자녀와 활동	중3, 고3 가구설문지
	학생과 대화시간	중3, 고3 가구설문지
정서적 지지	보호자와의 대화시간(남성보호자, 여성보호자)	고3 학생설문지
	가정의관심(학업성적, 친구, 친한친구의 부모, 학교생활, 생활습관, 개인적 고민)	중3, 고3 가구설문지
	양육태도(남성보호자, 여성보호자)	고2, 고3 학생설문지

<표 계속>

7) '일반고'와 '전문고'를 의미한다.

분류	변수명	측정
적성 및 진로탐색	<진로성숙도>	
	미래 직업 결정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미래직업에 대한 지식 수준	중3, 고3 학생설문지
	미래직업 역할모델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희망 전공 결정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희망 전공에 대한 지식 수준	중3, 고3 학생설문지
	자신의 적성인지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적성을 알게 된 경로	중3, 고3 학생설문지
	<가정진로지도>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대화(어떻게 살 것인지, 진로와 적성에 대한 대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중3, 고3 학생설문지
	<학교진로지도>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학교진로지도 가짓수	중3, 고3 학생설문지
	학교진로지도만족도	중3, 고3 학생설문지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동아리활동시간	고3 학생설문지	
사교육	사교육 여부	중3, 고3 학생설문지
	주 평균 사교육 총시간	중3, 고3 학생설문지
	사교육 도움 정도 평가	중3, 고3 학생설문지
	혼자 공부하는 시간	중3, 고3 학생설문지

3. 분석방법

가. 잠재집단 도출방법

변수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찰변수중심적 방법(variable-centered)과 관찰대상중심적 방법(person-centered)이 있다. 관찰변수중심적 방법은 집단 전체의 평균 발달 궤적을 밝히는 데 유용하며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석방법이고, 관찰변수중심적 방법은 한 집단 내에서 차별화된 발달 궤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Nagin(1999)의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이 대표적인 방법이다(정익중, 2007).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하나의 집단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Nagin(1999)의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횡단적으로 한 시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대상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대상들을 묶는 방법이다(정익중, 2007).

분석을 위해 SAS 프로그램의 매크로인 PROC TRAJ을 사용하였다(Jones, Nagin, & Roeder, 2001)⁸⁾. 이 방법은 종단적인 변화 궤적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할 뿐 아니라 다항로지트 분석을 통해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친 변수에 대한 검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응답치가 없는 표본을 생략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Nagin, 1999).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CNORM(censored normal)모델, ZIP(zero-inflated Poisson)모델, LOGIC(logistic)모델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잠재집단을 도출하고자 하는 변수인 자아정체감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CNORM 모델을 적용하였다(Jones, Nagin, & Roeder, 2001).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에서 측정시점에서의 변수값을 구하는 다항식은 3차식까지 가능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Jones, Nagin, & Roeder, 2001).

$$\mu_{ijk} = \beta_{ak} + t_{ij}\beta_{1k} + t_{ij}^2\beta_{2k} + \dots + w_{ij}\delta_k$$

이 때 μ_{ijk} 는 잠재집단 k에 속한 개인 i의 t시점에서 나타난 변수값이다. 위의 식에서 계수는 해당 집단 변화궤적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 판단하기 위한 값으로는 BIC 값을 사용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Nagin, 1999).

$$BIC = \log(L) - 0.5 \log(n)^*(k)$$

L은 모델의 최대우도값이고, n은 표본의 크기, k는 파라미터의 개수(집단의 개수)를 의미한다(Nagin, 1999). BIC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패널티를 적용하는 값으로서, 간결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값이다. BIC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ROC TRAJ을 실행하면 1차식부터 3차식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집단별로 가장 적합한 차수를 결정하여 BIC 값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1개 집단부터 분석하여 집단 수가 늘어감에 따라 BIC 값이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여 가장 적합한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집단 모형이 결정되면, 각 개인들이 어떤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 검토하여 소속 집단을 결정하게 된다. PROC TRAJ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각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며,

8) SAS 매크로는 <http://www.andrew.cmu.edu/user/bjones/index.htm> 에서 제공하고 있다.

$$\Pr(Y_i = y_i | C_i = k, W_i = w_i) =$$

$$\prod_{y_{ij} = \min} \Phi\left(\frac{Min - \mu_{ijk}}{\sigma}\right) \prod_{\min < y_{ij} < Max} \frac{1}{\sigma} \phi\left(1 - \Phi\left(\frac{Max - \mu_{ijk}}{\sigma}\right)\right)$$

그 결과에 따라 소속 집단을 결정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잠재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잠재집단별 특성 파악을 위한 예상요인 탐색

PROC TRAJ을 통해 도출된 자아정체감 잠재집단 별 청소년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서열변수 이하로 측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교차표 분석을 이용한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속변수로 측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F통계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

자아정체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기에 앞서, 자아정체감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평균 자아정체감 수준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솟값은 낮아지며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의 분포는 모든 연도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자아정체감 기술통계 분석

연도 (차수)	표본수 (명)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표준오차)	첨도(표준오차)
2004 (1차)	747	3.32(.57)	1.50	5.00	.09(.89)	.20(.18)
2007 (4차)	729	3.56(.53)	1.50	5.00	-.18(.91)	.51(.18)
2010 (7차)	455	3.66(.62)	1.00	5.00	-.42(.11)	.99(.23)
2013 (10차)	658	3.73(.60)	1.00	5.00	-.11(.10)	.4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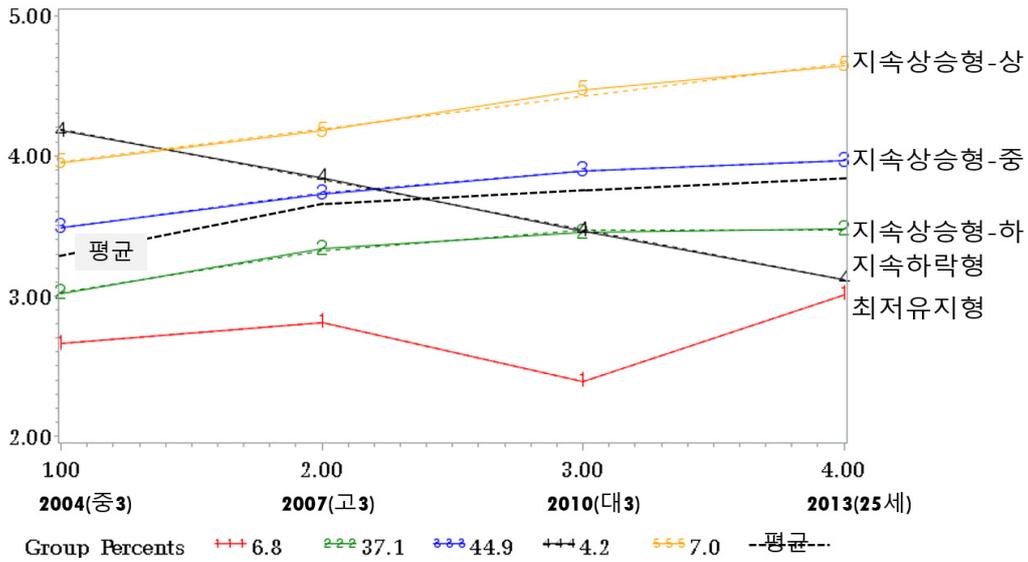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변화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1개 집단부터 차례로 집단 수를 늘려 가며 3차식으로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BIC 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 4>와 같이 BIC 값은 집단 수가 5개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6개 집단일 때 다시 감소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모형으로 5개 집단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표 4>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검정

집단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BIC	-2270.49	-2152.93	-2127.04	-2126.92	-2125.11	-2132.46

각 잠재집단별로 적절한 변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3차 함수(cubic) 모형을 적용했을 때 3차 함수가 유의하게 분석된 집단은 3차 함수로 추정하였고, 3차함수가 유의하지 않은 집단은 2차 함수(quadratic), 1차 함수(linear), 절편(intercept) 순으로 차수를 줄여가며 모형을 검정하여, 모든 잠재계층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집단 <1>은 3차, 집단 <2>와 <3>은 2차, 집단 <4>와 <5>는 1차함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때 BIC 값은 -2106.11 이었다. 이에 따라 각 집단에 적합한 함수를 적용하여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⁹⁾ 자아정체감 전체 평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단 <1>은 전체 표본의 6.8%에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최저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 표본의 37.1%에 해당되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집단으로, “지속상승형-하”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 표본의 44.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집단이며 평균과 비슷한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지속상승형-중”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전체 표본의 4.2%에 해당되며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지속하락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전체 표본의 7.0%에 해당되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이고 확연하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지속상승형-상”이라 명명하였다.

9)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대상 전체집단의 연도별 자아정체감 평균을 나타내는 선을 추가하였다.



[그림 1]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5개 잠재집단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집단은 자아정체감 변화 양상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최저유지형 (<1>), “지속하락형 (<2>), “지속상승형-상 (<5>)” 집단이다. 이들 집단 별로 특히 청소년기의 관련 예상요인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후 자아정체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잠재집단간의 특성 탐색을 위한 예상요인 검토

분석 결과를 크게 5가지 범주¹⁰⁾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5> 개인특성-인구사회적 특성

분류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성별	$\chi^2=5.738$	-
	보호자 유형_중3	$\chi^2=13.526$	-
인구사회	보호자 동거여부_중3	$\chi^2=1.285$	-
	남성보호자학력	$\chi^2=25.571$	-
	여성보호자학력	$\chi^2=24.232$	-

<표 계속>

10) 이 중, 개인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교생활 특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류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형제서열	F=.082	4>5>3>2>1
	소득_중3	F=2.349	5>4>3>2>1
	소득_고3	F=2.159	5>3>2>4>1
	학교급 ¹¹⁾ _고3	$\chi^2=4.402$	-
	남고여고	$\chi^2=4.474$	-

주: p < .05*, p < .01**, p < .001***

인구사회학적 예상요인으로 검증된 ‘성별’, ‘가족구성’, ‘부모학력’, ‘형제서열’, ‘가구소득’, ‘학교급’과 ‘남녀공학 여부’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 변화궤적 잠재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차이가 있고(양지웅, 2014), 조손가정의 청소년과 다른 가족구성형태의 청소년 사이에 자아정체감 형성의 차이가 존재하며(신은경, 2004), 산업체 여자고등학생이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배제현, 1993)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결과(홍성애, 1988, Sedofsky, Bensman, Lilinfel & Manos, 1967)와 ‘SES와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과(최진아·이숙, 1991; 홍은화, 1985)가 보고되었는데, 분석결과 보호자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인특성-학교생활 특성

〈표 6〉 개인특성-학교생활 특성

분류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_중3	F=14.061***	3>5>4>2>1 (3>2***, 3>1***, 5>1***)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_고3	F=6.076***	5>3>4>2>1 (3>2**)
	성적등급 ¹²⁾ _중3	F=2.545*	3>4=5>2>1
	성적등급(3학년 1학기)_고3	F=3.279*	5>3>2>1>4
	수업태도_고3	F=10.893***	5>3>4>2>1 (5>1***, 5>2**, 3>1**, 3>2**)
	교과흥미_고3	F=17.862***	5>4>3>2>1 (5>1***, 5>2***, 4>1**, 3>2***, 3>1***, 2>1*)

<표 계속>

11) ‘일반고’와 ‘전문고’

12) 값이 클수록 성적이 좋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류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학업스트레스_고3	F=2.871*	1>2>3>4>5
	비행경험수(가출,흡연,음주)_중3	F=1.286	5>3>4>1>2
	비행경험수(가출,흡연,음주)_고3	F=1.144	5>4>3>2>1
	왕따경험_고3	$\chi^2=6.107$	-

주: p < .05*, p < .01**, p < .001***

학교생활 검토요인들 중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중3, 고3)’, ‘성적등급(중3, 고3)’, ‘수업태도(고3)’, ‘교과흥미(고3)’, ‘학업스트레스(고3)’에 있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성적등급’은 중3과 고3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3과 고3 시기 자아정체감 수준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3>, <4>, <5>인데, 이 중 중3 이후 지속적으로 자아정체감 점수가 상승하는 집단 <3>과 <5>는 중3과 고3 모두에서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포함해 측정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곽미정, 김영미,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집단 <4>는 중3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집단 <4>의 자아정체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임을 고려할 때 그 외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적 역시 중3과 고3 시기 모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 성적도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선행연구(신경원, 2010) 결과와 일치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3때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던 집단 <4>는 중3때 학업성적도 높은 편이었으나, 고3이 되면서 학업성적이 최하위권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성적과 자아정체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높은 자아정체고, 자아정체감 점수 역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학업성적의 급격한 하락이 집단 <4>의 자아정체감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3 시기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 <3>, <4>, <5>에서 수업태도와 교과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고3때의 학업스트레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3때의 학업스트레스는 고3때의 학업성적 순위와 정확히 역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태도, 교과흥미 등의 변수들과도 전반적으로 역순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이지민, 2009; 이현림, 천미숙,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편인 집단 <3>, <5>는 학교생활 관련 변인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 <1>은 모든 학교생활 관련 변인에 대

하여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적인 자아정체감 하락을 보이는 집단 <4>는 학교생활 관련 변인과 관련하여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학업성적의 눈에 띄는 하락이 특징적이다.

비행, 왕따와 관련된 변인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아정체감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집단 <4>와 자아정체감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 <1>이 비행 행동을 하는 집단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비행, 왕따 등 또래관계와 관련된 비일반적이고 극단적인 경험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데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치관

〈표 7〉 가치관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인생의 중요한 것 1순위_중3	$\chi^2=33.146$	-
인생의 중요한 것 1순위_고3	$\chi^2=27.286$	-
대학진학이유_중3	$\chi^2=42.807^{***}$	-
대학진학이유_고3	$\chi^2=20.824$	-
학과선택고려요인1순위_고3	$\chi^2=38.682$	-
직업 갖는 이유_고3	$\chi^2=13.122$	-
직업선택요소 1순위_중3	$\chi^2=45.352$	-
직업선택요소 2순위_중3	$\chi^2=37.666$	-
직업선택요소 1순위_고3	$\chi^2=68.838^{**}$	-
내재적 학습동기_고3	F=9.542^{***}	5>3>4>2>1 (5>1^{***}, 3>2^{**}, 2>1*, 3>1^{***})
외재적 학습동기_고3	F=4.027^{**}	2>1>3>5>4

주: $p < .05^*$, $p < .01^{**}$, $p < .001^{***}$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중3)’, ‘직업선택의 요소 1순위(고3)’, ‘내재적 학습동기(고3)’, ‘외재적 학습동기(고3)’에 있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최저유지형)은 중3 시기에 대학진학이유로 ‘사회적 대우’, ‘부모님의 기대’를 선택한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고3 시기 직업선택요소 1순위에 있어서도 집단 <1>은 ‘높은 소득’, ‘지속적 고용’, ‘사회적 인정’과 같이 외적으로 표출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치를 선택한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¹³⁾.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을 갖는 이유’에서 있어서도 집단 <5>(지속상승형-상)는 ‘자아실현’을 선택한 빈도가 가장 높

13) 반면, 다른 네 개 집단에서는 ‘소질과 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기대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았지만, 집단 <1>은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 ‘사회적 인정’을 선택한 빈도가 더 우세하였다. 이것은 집단 <1>에서처럼 자아정체감이 매우 낮고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확신과 가치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인정이나 도구적 보상가치가 학업 및 진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집단들 사이에서는 내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내재적 학습동기(고3)의 집단별 순위(5>3>4>2>1)¹⁴⁾는 전반적으로 같은 시기의 자아정체감(고3) 집단별 순위(5>4>3>2>1)와 유사했다. 그런데 외재적 학습동기에 대해서는 내재적 학습동기가 낮았던 집단 <1>과 <2>가 가장 높게, 내재적 학습동기가 가장 높았던 집단 <5>는 하위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직업가치관은 미래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Dawis & Lofquist, 1984). 특히 내적 가치관이 높을 때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정주영, 2013; 신희경·이종승, 2007), 외적 동기로 대학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학진학 후에 상대적으로 혼란과 부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윤정·이은주, 2014). 이처럼 대학·진로·직업에 대한 결정요인과 가치관이 미래 직업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인이라고 할 때, 집단 <1>(최저유지형, 외적가치 우선하는 경향)과 집단 <5>(지속상승형-상, 내적가치 우선하는 경향)의 이후 대학적응 및 진로만족도에는 가시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정서적 지지

<표 8> 정서적지지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가정생활 만족도_중3	F=13.230***	5>3>4>2>1 (5>1***, 3>2***, 3>1***, 4>1*, 2>1*)
가정생활 만족도_고3	F=6.289***	5>3>4>2>1 (5>2*, 5>1***, 3>1**)
[양육태도] 남성보호자(감독)_고3	F=10.422***	5>4>3>2>1 (5>1***, 5>2***, 5>3*, 3>2*)
[양육태도] 남성보호자(합리적 설명)_고3	F=10.550***	5>4>3>2>1 (5>1***, 5>2**, 4>1**, 3>1***, 2>1**)
[양육태도] 남성보호자(애정)_고3	F=10.212***	5>4>3>2>1 (5>1***, 5>2**, 5>3*, 4>1**, 3>1**, 2>1*)
[양육태도] 여성보호자(감독)_고3	F=6.174***	5>3>4>2>1 (5>1**, 5>2**)
[양육태도] 여성보호자(합리적 설명)_고3	F=9.191***	5>4>3>2>1 (5>1***, 4>1**, 3>2*, 3>1***, 2>1*)
[양육태도] 여성보호자(애정)_고3	F=11.160***	5>3>4>2>1 (5>1***, 5>2***, 3>2**, 3>1***)

<표 계속>

14) 이때에도 집단 <3>과 <4>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u><상호작용 시간></u>		
학생과 대화시간_중3	$\chi^2=24.738$	-
학생과 대화시간_고3	$\chi^2=26.713^*$	-
남성보호자 대화시간_고3	F=1.107	4>5>2>3>1
여성보호자 대화시간_고3	F=.542	5>2>3>4>1
<u><상호작용 영역></u>		
[가정의 관심] 학업성적_중3	F=5.527***	5>3>1>2>4 (5>2***, 5>3*)
[가정의 관심] 학업성적_고3	F=5.143***	5>3>2>4>1 (5>1**, 5>2**, 5>4*)
[가정의 관심] 친구_중3	F=4.777**	5>3>4>2>1 (5>1*, 5>2**)
[가정의 관심] 친구_고3	F=3.333*	5>4>3>2>1 >2*, 5>3*)
[가정의 관심] 친한 친구의 부모_중3	F=3.229	5>3>4>2>1
[가정의 관심] 친한 친구의 부모_고3	F=1.019	5>4>3>2>1
[가정의 관심] 학교생활_중3	F=5.409***	5>4>3>2>1 (5>1**, 5>2**)
[가정의 관심] 학교생활_고3	F=2.748*	5>3>2>4>1
[가정의 관심] 생활습관_중3	F=2.325	5>3>2>4>1
[가정의 관심] 생활습관_고3	F=2.611*	5>3>2>1>4
[가정의 관심] 개인적 고민_중3	F=3.190*	5>4>3>2>1
[가정의 관심] 개인적 고민_고3	F=4.478**	5>3>2>4>1 (5>1**, 5>2*)
[가정의 관심] 전체_중3	F=8.685***	5>3>4>2>1 (5>1*, 5>2***, 5>3*, 3>2*)
[가정의 관심] 전체_고3	F=4.966**	5>3>2>4>1 (5>1**, 5>2**, 5>3*)
학생설문_가족과 활동수준_평균_중3	F=7.612***	5>4>3>2>1 (5>2**, 5>1**, 3>1**)
가구설문_가족과 활동수준_평균_중3	F=4.361**	5>4>3>2>1 (5>2*, 5>1*)
학생설문_가족과 활동수준_고3	F=4.405**	5>4>3>2>1 (5>2*, 5>1*)
가구설문_가족과 활동수준_평균_고3	F=2.419*	5>4>3>1>2
<u><학생이 갖고 있는 고민></u>		
[고민] 공부, 성적문제_중3	F=4.127**	1>4>2>5>3 (1>3*)
[고민] 진학, 진로문제_중3	F=3.242*	1>4>2>3>5
[고민]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불화_중3	F=3.129*	1>2>3>5>4 (1>3*)

<표 계속>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고민] 친구와의 관계_중3	F=5.640***	1>4>2>3>5 (1>3**)
[고민] 성격문제_중3	F=5.753***	1>4>2>3>5 (1>3*)
[고민] 외모,신체문제_중3	F=2.451*	1>2>4>3>5
[고민] 가족과의 불화_고3	F=3.624**	1>3>2>4>5 (1>2*,1>5*)
[고민] 본인 성격_고3	F=3.799**	1>4>2>3>5 (1>3*,1>5*)
[고민] 외모,신체문제_고3	F=2.981*	1>4>2>3>5
자살 고민 경험_중3	$\chi^2=10.878^*$	-
자살 고민 여부_고3	$\chi^2=7.580$	-
격려자 유무_중3	$\chi^2=42.426^{***}$	-
격려자_중3	$\chi^2=40.792$	-
격려자 유무_고3	$\chi^2=32.808^{***}$	-
격려자_고3	$\chi^2=34.200$	-

주: p < .05*, p < .01**, p < .001***

가족구성원 사이의 친밀감과 애정은 청소년의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특히 가족건강성 및 가족기능의 활성화 수준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정남·권윤희, 2002; 배경희·심은하, 2007; 허정철, 2008). 정서적 지지 범주에서는 주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요인을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의 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집단별 순위는 중3과 고3 모두 동일했다(5>3>4>2>1). 자아정체감 순위(중3: 4>5>3>2>1, 고3: 5>4>3>2>1)와 비교하면 집단 <1>(최저유지형), <2>(지속상승형-하)에서만 순위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단 <5>(지속상승형-상)와 <3>(지속상승형-중)은 자아정체감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는 반면 집단 <4>(지속하락형)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방향성’을 감안하면, ‘가정생활 만족도’와 ‘자아정체감 수준’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자의 양육태도’에 관해서는 보호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집단 <5>는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집단 <1>과 <2>는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다. 부모의 민주적이고 온정적·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은희, 정순옥, 2006; 서진숙, 이동혁, 2010)에 비춰볼 때, 집단 간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수준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는 가족구성원들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

루어지므로 대화 및 의사소통의 ‘양’(시간)과 ‘질’(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보호자와 학생자녀와의 대화시간’은 고3 시기에서만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의 영역’ 및 ‘가족과의 활동수준’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별 순위를 살펴보면 집단 <5>가 가장 높은 관심의 수준을, 집단 <1>이 가장 낮은 관심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민’에서는 집단 <1>(최저유지형)과 <4>(지속하락형)가 가장 높은 순위를, 집단 <5>(지속상승형-상)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전반적 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민하영, 권기남, 2004; 백경미 외, 2008; 이지민, 2009)을 감안하면, 가족 내의 의사소통 개방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청소년 자신의 고민해소 수준도 높아지고, 이것이 자아정체감의 수준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집단 <1>과 <4>의 ‘가족 내 의사소통 단절’은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이는 것에 있어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

‘격려자’ 요인 역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주요 요인인데, 집단별로 ‘격려자가 있는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격려자가 누구인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사람이 격려해주는지’보다는 ‘격려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다섯 개 집단 모두를 통틀어 ‘격려자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5%였지만, 집단 <1>(최저유지형)에서는 그 비율이 30%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58.54%).

마. 적성 및 진로 탐색

<표 9> 적성 및 진로 탐색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u><진로성숙도></u>		
미래 직업 결정 여부_중3	$\chi^2=42.685^{***}$	-
미래 직업 결정 여부_고3	$\chi^2=30.435^{***}$	-
미래직업 관련 지식수준_중3	F=16.498 ^{***}	5>4>3>2>1 (5>3 ^{**} , 5>2 ^{***} , 5>1 ^{***} , 4>2 ^{**} , 4>1 ^{***} , 3>2 ^{**} , 3>1 ^{**})
미래직업 관련 지식수준_고3	F=9.068 ^{***}	5>4>3>2>1 (5>3 ^{***} , 5>2 ^{***} , 5>1 ^{***})
저 사람처럼 되고싶다_중3	$\chi^2=18.302^{**}$	-
미래직업 역할모델_고3	$\chi^2=9.441$	-
희망 전공 결정 여부_중3	$\chi^2=39.445^{***}$	-

<표 계속>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희망 전공 결정 여부_고3	$\chi^2=20.794^{***}$	-
희망 전공에 대한 지식_고3	$F=14.832^{***}$	5>4>3>2>1 (5>1 ^{***} , 5>2 ^{***} , 5>3 ^{**} , 4>1*, 3>2 ^{**} , 3>1 ^{**})
자신의 적성 인지 여부_중3	$\chi^2=106.405^{***}$	-
자신의 적성 인지 여부_고3	$\chi^2=77.649^{***}$	-
적성을 인지하게 된 된 경로_중3	$\chi^2=16.324$	-
적성을 인지하게 된 된 경로_고3	$\chi^2=30.294$	-
<u><가정 진로지도></u>		
어떻게 살지 대화_중3	$\chi^2=18.466^{**}$	-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_중3	$\chi^2=40.505^{***}$	-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_중3	$\chi^2=9.893^*$	-
직업, 학교, 학과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_중3	$\chi^2=33.504^{***}$	-
어떻게 살지 대화_고3	$\chi^2=40.588^{**}$	-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_고3	$\chi^2=47.278^{**}$	-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_고3	$\chi^2=28.158$	-
직업, 학교, 학과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_고3	$\chi^2=29.977$	-
<u><학교 진로지도></u>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_중3	$\chi^2=47.752^{***}$	-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_고3	$\chi^2=30.869^{***}$	-
학교진로지도방식의 갯수_학생_중3	$F=4.1^{**}$	5>3>2>4>1 (3>2*)
학교진로지도만족도_학생_중3	$F=8.883^{***}$	5>4>3>2>1 (5>2*, 5>1 ^{**} , 3>2*, 3>1 ^{**})
학교진로지도방식의 갯수_학생_고3	$F=1.328$	5>3>2>1>4
학교진로지도만족도_학생_고3	$F=4.630^{**}$	5>3>4>2>1 (5>1*)
<u><동아리 활동></u>		
동아리 활동 경험_중3	$\chi^2=21.970^{***}$	-
동아리 활동 여부_고3	$\chi^2=12.432^*$	-
동아리활동 시간_고3	$F=.745$	5>3>2>4>1

주: p <.05*, p <.01**, p <.001***

‘적성 및 진로 탐색’ 범주에서도 상당부분의 검토요인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자아정체감 순위가 높은 집단 <3>, <4>, <5>에서는 ‘미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대빈도와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중3때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순서대로 미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고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

은 집단 <4>(지속하락형)에서는 중3때와 비교할 때 고3때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에도, ‘결정한 직업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 순위와 미래직업 지식 순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것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희망 직업을 미리 결정하고 그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성인기로 전이된 후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미래 직업과 관련된 역할모델이 있는지’에 대해, 중3 때의 응답에서 집단 <1>, <2>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고, 집단 <3>, <4>, <5>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다. 고3 때는 역할모델의 존재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으나, 집단 <5>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빈도가 증가한 반면 집단 <4>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집단 <4>가 중3에서 고3으로 성장하면서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증가한 것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희망 전공을 결정했는지’에 관해서도 집단 <1>, <2>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고,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집단별 응답순위는 고3때의 자아정체감 순위(5>4>3>2>1)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서 집단 <4>, <5>는 “예”라고 응답한 빈도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빈도보다 10배 이상 많은 반면 집단 <1>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빈도가 “예”라고 응답한 빈도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한편, 적성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집단별 차이는 청소년 시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홍향연, 유태명, 2008)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집단 <3>(지속상승형-중)과 <5>(지속상승형-상)는 높은 수준을, 집단 <1>(최저유지형)과 <2>(지속상승형-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서는 ‘나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이 있다’와 관련해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방식의 가짓수’보다 ‘진로지도 만족도’에서 집단별 차이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3 시기에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는데, 이것은 진로지도 방식의 개수나 다양화 자체보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수준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활동 시간’보다 ‘활동경험 유무’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적성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는 ‘탐색활동을 경험했느냐’하는 유무의 문제가 ‘어떻게 탐색했느냐’하는 방법의 문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15) 특히 고3때의 순위는 일치한다.

(6) 사교육

〈표 10〉 사교육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사교육의 도움 정도 평가_중3	F=2.194	5>3>2>4>1
사교육의 도움 정도 평가_고3	F=6.339***	5>3>2>4>1 (5>2*, 5>4*, 5>1**, 3>1*)
사교육 총시간_중3	F=1.057	5>1>3>4>2
사교육 총시간_고3	F=1.048	5>2>1>3>4
사교육 여부_중3	$\chi^2=1.523$	-
사교육 여부_고3	$\chi^2=4.190$	-
혼자 공부하는 시간_중3	F=5.619***	4>5>3>2>1 (3>2*)
혼자 공부하는 시간_고3	F=2.201	5>3>2>4>1

주: $p < .05^*$, $p < .01^{**}$, $p < .001^{***}$

사교육 관련 범주에서는 ‘고3 시기의 사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중3 시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유지되었던 집단 <1>은 ‘사교육 총 시간’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사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앞서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지지’와 연관시켜 보면, 집단 <1>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걸쳐 낮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이 계속 유지된 것에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른 지나친 사교육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집단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집단 <4> (지속하락형)는 중3 시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고3 시기에는 그 순위가 매우 낮아졌다. 집단 <4>는 사교육 시간이 적은 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집단 <4>에서 자아정체감이 하락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교육의 부작용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집단별 특성 분석

가. 집단 <1>(최저유지형)

자아정체감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 <1>은 개인특성, 가치관, 정서적 지지, 적성 및 진로 탐색, 사교육 범주 대부분의 요인과 관련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먼저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적성이나 흥미 등 내적요소보다는 ‘높은 소득’, ‘사회적 인정’ 같은 외적요소가 대학진학, 직업선택, 학습동기 등에 우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격려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도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보호자와의 대화시간이나 관심도 역시 낮았다. 고민의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도 진로성숙도 등이 가장 뒤떨어졌고, 역할모델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교육’ 관련해서는 사교육 시간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정서적 지지의 부재’와 더불어 ‘적성 및 진로탐색의 부족’이 이 집단의 특징인데, ‘높은 사교육 시간 대비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집단 <1>에 대해서는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가 단절된 가운데, 사회적 성공 등 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모나 주위의 의사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본인 스스로에 의한 진로탐색과 자율적 학습보다는, 부모에 의한 사교육 등 타율적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 집단 <2>(지속상승형-하)

집단 <2>는 시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수준 자체는 전체 평균보다는 낮고 집단 <1>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이 집단은 대부분의 범주에서 집단 <1>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치관’ 범주에서는 집단 <1>과 마찬가지로 내적가치보다 외적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집단 <1>보다는 약했다. 이 집단 역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칭찬을 받거나, 별을 받지 않기 위해 학습하려는 등 외적동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적 지지’와 관련해서도 가장 순위가 낮은 집단 <1>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해, 가족구성원과의 정서교류 단절이나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성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방식 가짓수’나 ‘동아리활동 시간’에서는 중간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단 <1>보다 자율적 활동과 적극적 진로지도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집단 <2>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서적 지지수준이 낮고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율적인 동아리활동 등은 집단 <1>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아, 부모나 가족구성원에 의한 ‘역압’보다는 그들과의 ‘단절’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런 상황에서 자아탐색의 기회는 집단 <1>보다는 높았는데, 이것이 낮은 수준이나 자아정체감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 집단 <3>(지속상승형-중)

자아정체감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 <3>은 집단 <5>(지속상승형-상)와 더불어 대부분의 범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긍정적 특성을 보였다.

집단 <3>은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중3때 1위, 고3때 2위를 기록했다. ‘성적등급’ 역시 중3때 1위, 고3때 2위였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집단 <5> 다음으로 ‘자아실현’과 같은 내적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동기에 있어서는 외적인 동기의 중시수준도 중간으로 나타나, 내적·외적 가치관 모두를 평균 이상으로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서도 ‘가정생활 만족도’나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수준이 집단 <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성 및 진로 탐색’의 경우 ‘미래직업의 결정’, ‘희망전공의 선택’에 있어 “그렇다”는 답변자의 비율이 높았고, “역할모델이 있다”는 응답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미래직업지식’ 및 ‘희망전공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있어서는 중간 순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 <3>은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정서적 지지수준도 높고 성적도 높으며, 진로성숙도도 높았다. 그러나 진로와 관련된 지식수준은 전공과 직업결정 수준에 비해 낮았고, 내적가치 못지않게 외적가치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정서적 안정감이나 미래준비 수준은 높은 편이나, 자아성찰 및 내적 가치관 확립은 집단 <5>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정체감 수준에 있어서 집단 <5>와의 차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라. 집단 <4>(지속하락형)

집단 <4>는 자아정체감을 처음 측정했던 중3 때 가장 높은 자아정체감 수치를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하락해 25세경 최종적으로는 최하위수준에 근접했다. 이 집단은 청소년기 관련요인들에 있어 범주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 중3에서 고3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학업성적’, ‘혼자 공부하는 시간’, ‘사교육시간’ 등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불명확성이 증대했다. 따라서 집단 <4>에서의 지속적인 자아정체감 하락은 학업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잃은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나친 사교육의 부작용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이 점이 집단 <1>과 다르다고 보인다).

‘적성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응답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3때에 비해 고3때에 다른 집단보다 ‘진로결정 수준’, ‘동아리활동 수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만족수준’ 등이 확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은 중3 때 높게 나타나, 중학교 이후 자아정체감, 성적 등이 하락

함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고3이 되었을 때는 전반적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수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수준’ 및 ‘대화시간’이 낮게 나타났고, 학생 스스로의 고민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도 가족 내 의사소통의 단절 내지 의견 충돌이 학생 본인의 내적고민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교육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중3 시기에는 성적등급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높은 편이었으나 고3 시기에는 성적등급 순위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이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었고, 그렇다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 것을 보면,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에 신경을 쓰거나 방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자 비율과 ‘직업 관련 지식의 습득’ 수준이 중3 시기에는 높았다가 고3 시기에는 낮아진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즉, 본인의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하락하면서 중3 시기에 결정한 직업 및 미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 <4>는 중3 시기에 어느 정도 미래 진로와 계획을 수립했고 성적도 높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고등학교 진학 후 ‘성적하락’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감소’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3 시기에 결정했던 ‘미래 계획’과 고등학교 진학 후 하락하는 ‘성적’ 사이의 괴리가 집단 <4>에서의 고민과 방향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마. 집단 <5>(지속상승형-상)

집단 <5>는 중3때 측정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편이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3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모든 범주의 요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긍정적 특성을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수업태도’, ‘교과흥미’ 등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내적 동기와 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외적 동기와 가치관’은 낮았다. 공부시간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시간’과 ‘사교육 도움정도 평가수준’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습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는 것인데, 높은 성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5>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지가 매우 높았고, 진로성숙도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뿐 아니라 ‘가정의 진로지도’ 응답수준도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이 갖고 있는 고민수준은 모든 종류에 대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집단 <5>는 가족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사회적·정서적 지지도 높았고, 자아성찰 및 내적 가치관 확립이 적절히 이뤄진 상태에서, 적성 및 진로에 대한 탐색도 충분

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래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높은 성적을 얻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고민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는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지를 토대로 한 정서적 안정이 스스로의 자아성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한 충분한 진로탐색이 강력한 학습동기로 작용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높게 유지되는데 일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11〉 잠재집단별 특성 분석 요약

집단	자아정체감 특징	청소년기 관련요인 특성
<1> 최저유지형	모든 시기에서 가장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 변화방향성에 큰 차이 없음	외적 가치관 요소 중시 사회적·정서적 지지 부족, 가족간 의사소통 부족 적성 및 진로탐색 미흡 사교육 시간은 평균보다 높으나, 사교육이 도움되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
<2> 지속상승형-하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성 평균보다 다소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	집단 <1>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외적 가치관 요소를 중시하고 사회적·정서적 지지 부족 동아리활동 등의 자율적 경험은 평균 수준 부모 등에 의한 ‘억압’보다는 부모 등과의 ‘단절’이 문제일 가능성
<3> 지속상승형-중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성 평균보다 다소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	사회적·정서적 지지수준 및 성적, 진로성숙도가 높은 편 진로 관련 지식수준은 직업결정 수준에 비해 낮음 자아성찰 및 내적 가치관 확립수준은 집단 <5>에 비해 미흡
<4> 지속하락형	꾸준히 하락하는 방향성 중3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25세경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	중3 시기의 성적 및 미래진로 탐색수준이 높았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 매우 낮아짐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 경험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과 방황의 가능성
<5> 지속상승형-상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성 자아정체감 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고, 고3이후 가장 높은 순위 기록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와 높은 사회적·정서적 지지 수준 자아성찰 및 내적 가치관 확립수준 높음 충분한 진로탐색과 강력한 학습동기 높은 학습시간 및 성적등급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고민수준

V. 결론 및 논의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통해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근본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자아정체감은 생애발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형성·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이 시기에 확립한 자아정체감은 이후의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보면,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청소년기 관련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중학교3학년 코호트의 자료를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 및 변화양상과 관련해 청소년기의 특성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16세(중3, 1차년도)부터 25세(10차년도)까지의 자아정체감 수준 및 변화궤적에 따라 5개의 잠재집단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준모수적 잠재집단중심 분석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청소년기의 예상 관련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치관’, ‘정서적 지지’, ‘적성 및 진로 탐색’, ‘사교육’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선정한 후, 기술통계분석 및 교차분석, ANOVA분석 등을 통해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중반 청소년기부터 20대 중반 성인기 초기까지 자아정체감의 수준 및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은 크게 다섯 개로 나뉘볼 수 있었다. 이들을 자아정체감과 관련해 각각 ‘최저유지형 집단(<1>’, ‘지속상승형-하 집단(<2>’, ‘지속상승형-중 집단(<3>’, ‘지속하락형 집단(<4>’, ‘지속상승형-상 집단(<5>’로 명명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널자료의 ‘학생’, ‘가족’, ‘학교관계자’ 설문지에서 청소년기의 예상 관련요인들을 선정해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각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별 관련요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속해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낮게 유지되는 ‘최저유지형 집단(<1>’은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정서적 지지가 부족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적성 및 진로 탐색은 미흡하고 미래결정과 학습동기에 있어 외적 가치관 요소를 중시하는 편이었다. 이 집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성공 등 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모나 주위의 의사가 본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자아성찰을 가로막음으로써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수준을 낮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꾸준히 상승하지만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수치는 평균보다 낮은 ‘지속상승형-하 집단(<2>’은 외적가치를 중시하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지만, 동아리활동 등의 자율적 경험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과 관련해서는 부모 등에 의한 자율성 ‘억압’보다는 부모 등과의 관계 ‘단절’이 자아정체감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아정체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지속상승형-중 집단(<3>’은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정서적 지지수준과 학업성적, 진로성숙도가 모두 높은 편이지만, 자아성찰 및 내적가치관 확립수준에 있어서는 ‘지속상승형-상 집단(<5>’보다 미흡했다. ‘지속상승형-상 집단(<5>’은 중3 시기에도 자아정체감이 높은 수준이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해 고3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집단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높고, 자아성찰 및 내적 가치관 확립도 적절히 이뤄져 있으면서, 적성 및 진로에 대한 탐색도 충분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강력한 학습동기로 작용하면서 높은 학습시간 투자 및 높은 성적으로 연결되었고, 자아정체감의 상승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3 시기에는 가장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

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하위수준에 근접하는 ‘지속하락형 집단(<4>)’는 중3 시기에는 성적이 높고 미래진로 탐색수준도 높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성적하락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경험했다. 고교진학 후의 성적하락이라는 ‘현실’과, 중3 시기 결정한 미래 계획 실현이라는 ‘희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고민과 방향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이 자아정체감의 하락에 꾸준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 검증보다는, 시간흐름을 고려한 ‘집단별 양태와 특성 차이’ 규명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을 통한 집단별 특성 분석은 각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내적·외적 갈등이 다르고, 이것이 자아정체감 형성·유예·유실·혼미 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집합적·맥락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이것은 회귀분석 등을 통한 통계적 영향력(또는 예측력) 분석에 앞서 대상집단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고 적실성있는 연구설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종단적 분석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한 시점에 고정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흐름과 인생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시기 ‘지속하락형 집단(<4>)’은 적성 및 진로탐색 수준과 자아정체감 수준이 모두 높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중반에는 최하위수준에 이른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아정체감 변화의 ‘방향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을 특정 시점에서 측정했을 때 드러난 가시적 수치 외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영향력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해 집단별 구분을 하고 그 집단별로 청소년기(2004, 2007)라는 ‘과거 요인’의 특성을 분석했지만, 이것이 ‘미래’의 ‘다른 요인’에 대한 일정한 예측력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의 행복정도에 있어 자아정체감 잠재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2>에 나타나듯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순위 역시 2013년의 자아정체감 순위(5>3>2>4>1)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성인기의 행복정도에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 자아정체감 잠재집단에 따른 행복정도

변수명	검정통계량	특성 (Scheffe)
행복정도_2013	F=22.181***	5>3>2>4>1 (5>4***, 5>3*, 5>2***, 5>1***, 4>3**, 3>1***, 3>2***)

주: $p < .05^*$, $p < .01^{**}$, $p < .001^{***}$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청소년기의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애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성인기 이후의 직업만족도나 행복도 등에 그 이전 시기인 청소년기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첫째, 청소년 내부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집단별로 학교나 사회 차원에서 개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청소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실질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계기와 기회가 확충되어야 한다. 적성 및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진로·전공에 관한 지식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 성인기에 들어서도 자아정체감이 낮거나 하락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기탐색과 직업결정이 내실있게 이뤄진 청소년 집단은 이후에도 자아정체감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중고등학교의 교과운영에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간접 체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 이전과 이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집단별 구분에 따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예상요인들의 집단별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실제 그 요인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 다항로지스틱분석 등을 통해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요인’ 등을 함께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추후 이와 관련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방법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공윤정 · 이은주(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상담학연구. 15권 5호.
- 곽미정 · 김영미(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권 3호.
- 김봉환 · 이계경 · 유현실 · 황매향 · 공윤정 · 손진희 · 강혜영 · 김지현 · 유정이 · 임은미 ·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정남 · 권윤희(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권 1호.
- 김지연(2004).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고등학생의 주체 형성과 기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 김경화 · 이영미(2007). 남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권 1호.
- 배경의 · 김은하(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 13권 3호.
- 백경미 · 현성용 · 한영숙(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배제현(1993). 산업체고교와 인문계고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청소년학연구. 1권 1호.
- 송현옥 · 박아청 · 최성열(2010). 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권 2호.
- 서진숙 · 이동혁(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11권 4호.
- 신경원(201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 오경석(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대학생생활연구. 11호.
- 신희경 · 이종승(2007).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5권 1호.
- 양지웅(2014). 청소년 자아정체감 지위의 성별 간 및 학년 간 비교. 교육문화연구, 20권 2호.
- 오은정 · 장성화(200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및 휴대전화 중독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1권 3호.
- 유환구 · 김진주 · 박나연(2014.10.16.). “꿈만 같던 백수탈출... 기쁨은 잠깐이더라”. 한국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1016045106675>
- 이미리 · 조성연 · 길은배 · 김민(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은희 · 정순옥(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7권 2호.
- 이지민(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권 5호.
- 이현림 · 천미숙(200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권 4호.
- 전창진(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5권 2호.



- 정복연(2004).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8). 전생애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권 3호.
- 정주영(2013).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1권 4호.
- 최인아·이숙(1991). 성, SES에 따른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및 자아개념. 생활과학연구. 1권.
- 한상근(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22권 4호.
- 허정철(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권 3호.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은화(1985).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요인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향연·유태명(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권 3호.
- 황매향(2008). 학업성취도 향상 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초등상담연구. 7권 2호.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New York: WW.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Kroger, J. (2003). Identity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4, 204-226.
- Lerner, R. M., & Steinberg, L. (Eds.).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Individual Ba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Vol. 1). John Wiley & Sons.
- Marcia, J. E. (1964). Determination and construct validity of ego identity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Nagin, K.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 139-157.
- Parsons, T., Shils, E. A., & Olds, J. (1962). Systems of value-orienta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159-189.
- Phillips, T. M., & Pittman, J. F. (2003). Identity processes in poor adolescents: Exploring the linkages between economic disadvantage and the primary task of adolescenc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2), 115-129.
- Shaffer, D. R. & Kipp, K.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8th ed. Wadsworth. 송길연 외 옮김 (2012). 발달심리학. 서울: Cengage Learning.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Waterman, A. S., Geary, P. S., & Waterman, C. K. (1974).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387.

Waterman, A. S., & Waterman, C. K. (1971).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the freshman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5(1), 167.

❖ Abstract ❖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dentity and Exploring Group Differences in Associated Factors: A 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

Kang Hyun-Gu, Song Ji-Na, Jung Su-Ji, Yi Soon-Hyung

Adolescence is a critical period to deepen understanding of him/herself, explore his/her interest and aptitude, and prepare for social roles of adults. However, Korean adolescents does not hav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self examination and career exploration under the pressure of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which focuses on college entrance and excessiv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jectory of identity formation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and to track down personal or environmental factors in adolescence to connect with it. This research identified latent groups of distinctive trajectories of Korean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based on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of factors related to identity formation among latent groups using the 1st, 4th, 7th, and 8th of third grade in middle school cohort of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data. 5 latent groups of trajectories of Korean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were demonstrated: (1) the group of which identity level has been low continuously, (2) the group of which identity level has slightly increased from the point less than the median, (3) the group of which identity level was similar to the median and has gradually increased as time passed by, (4) the group of which identity has steeply declined from the highest point, (5) the group of which identity level has steadily improved from the high point, Based on the result, it wa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of factors classified into personal traits, value systems, emotional support, career and aptitude exploration, private education among latent groups were quite evident. The result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endency of identity development for a long time as well as identity stature at one point and to consider identity formation in relation to personal o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context of earlier adolescence.

key word: KEEP,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t development, 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 contextual analysis